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과 또래관계와의 관계: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을 중심으로*

Relations of Upper Elementary Students' Playfulness with Peer Relationships:
Focusing on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임 은 실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Yim, Eun-Sil
Youth Counseling Center, Hanam City

김 현 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Kim, Hyun-Soo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layfulness in upper elementary students and their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use of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ree-hundred-and-sixty-five 5th or 6th graders in Seoul, Gyeonggi, and Gwangju areas completed paper-and-pencil questionnaires assessing these three constructs. The relationships were examined through correlation analyses, regression analyses, cluster analyses, and ANOVA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upper elementary students who had high playfulness showed better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and used more compromise/cooperation, avoidance, dominance, and concession strategies to resolve conflicts with peers than upper elementary students who had low playfulness. Second, social playfulness, among other playfulness dimensions, was found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shaping the students'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while emotional playfulness was found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students'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ird, cluster analysis identified three playfulness clusters, the 'High,' the 'Moderate,' and the 'Low' playfulness clusters. ANOVAs yielded results that demonstrated better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more use of compromise/cooperation, avoidance, dominance, and concess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the High playfulness cluster than in the Moderate and the Low playfulness clusters. The importance of playfulness in upper elementary students' peer relationships was emphasized and ways to develop upper elementary students' playfulness were discussed.

주제어(Keywords) : 학령 후기 아동(upper elementary students), 놀이성(playfulness), 또래관계 질(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또래갈등해결전략(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부교수(E-mail: khs1004@hanyang.ac.kr)

I. 서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유아기 및 학령 초기와는 달리, 학령 후기는 또래 상호작용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령 후기에는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게 되며, 부모와 이루어졌던 놀이 상호작용이 또래로 확산되고 전이된다(Bryant, 1982). 또한, 또래에 대한 애정, 충성도, 의존도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시기 아동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또래 압력을 받으며 또래의 따돌림을 큰 상처로 받아들인다(Kinney, 1993). 이처럼 또래 집단은 학령 후기 아동에게 있어 활동, 영향력, 지지의 근원으로 작용하며(김진경, 2002), 친밀감과 동일시의 원천이 된다(Berndt, 1979). 따라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또래관계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것은 학령 후기 아동이 달성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하겠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아동들은 다양한 또래 관련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또래관계 형성이나 유지의 문제, 또래활동 참가의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김은정, 2010; 김지원, 2010; 이지희, 2009), 이들 문제의 저변에는 놀이 활동의 감소가 한 몫을 하는 듯하다. 실제 일부 연구는 아동의 대인관계 문제가 놀이시간의 감소, 놀이문화의 축소, 놀이를 좋아해도 이를 행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경혜, 정현아, 2005; 이수희, 이재연, 2008). 이는 놀이가 아동의 또래관계 형성에 필수적 요소임을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과 성향, 동기를 놀이성(playfulness)이라 부른다(Barnett, 1990; Lieberman, 1965). 다시 말해, 놀이성이란 놀이를 하게 하는 잠재적인 힘과 성향, 혹은 놀이를 최대한으로 실현시키고 발현시키는 심리적 동기라 할 수 있다. Erikson(1972)은 놀이성을 삶에 대한 태도라 정의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역경이나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어려움, 갈등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Rubin, Fein과 Vandenberg(1983)는 놀이성을 내적동기에 의해 발현되는 성향으로 정의하며 놀이성이 높은 사람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놀이성 문헌을 고찰하면 놀이성의 구성 차원이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놀이성 측정 도구를 최초로 개발한 Lieberman(1965, 1977)은 유아의 놀이성을 신체적자발성, 사회적자발성, 인지적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Glynn과 Webster(1992)는 성인의 놀이성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들은 성인의 놀이성을 자발성, 표현력, 재미, 익살스러움, 창의성의 5차원으로 구조화하였다. 반면,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은 유아나 성인의 놀이성보다는 비교적 나중에 조명을 받았는데, 최태산, 최명선과 조미정(2008)은 발달단계별 아동의 변화를 고려해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을 유머감각, 정서적놀이성, 기발성, 사회적놀이성, 독자적놀이성, 재미탐닉의 6개 차원으로 구조화하였다. 각 차원을 정의하면, 유머감각은 친

구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쇼맨십이 있으며, 학급 분위기를 잘 살리고, 기분을 좋게 하는 다양한 언어적 기술, 신체적 움직임을 의미한다. 정서적놀이성은 정서적으로 밝고 명랑하며, 놀이할 때 즐거움을 찾는 편이고,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정서적 힘을 의미한다. 기발성은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를 활성화시키고, 놀이할 때 재치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성향을 의미한다. 사회적놀이성은 함께 놀 친구를 적극적으로 찾고, 놀이 시 좋은 관계적 성향을 지니고, 규칙과 흥미를 공유하고, 놀이상황에서 이타성을 발휘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독자적놀이성은 혼자 노래 부르기, 채팅하기, 낙서하기 등 혼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놀이 성향을 의미한다. 재미탐닉은 게임과 TV 등 재미위주의 놀이거리를 즐기며, 그런 놀이에 몰입하는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에는 유아기 놀이성에서 관찰되는 사회적놀이성, 정서적놀이성, 유머감각 그리고 성인기 놀이성에서 관찰되는 정서적놀이성, 유머감각, 재미탐닉, 기발성에 더해 독자적놀이성이 추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태산 외(2008)는 학령기 아동 놀이성 척도 개발 연구에서, 비록 독자적놀이성과 재미탐닉은 다른 4개 놀이성 차원들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을 구성하는 6개 차원들은 모두 서로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놀이성과 또래 관련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는 유아의 놀이성이 이들의 또

래유능성, 사회능력, 또래관계에 정적 영향을 줄을 밝힌 바 있으며(김근희, 2005; 박은주, 2008; 우수경, 2013; 임희경, 2008; 최연화, 2011; 최윤미, 2010), 보다 구체적으로 박선영(2012)은 놀이성이 풍부할수록 유아가 또래에게 긍정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시도하고 친애 욕구와 호의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최수경, 박인전, 2012). 이처럼 선행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관계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놀이성이 또래관계 및 또래관련 변인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성과 또래 관련 변인 간 관계 연구는 연구가 제공하는 임상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절대적 인식 수준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에 대한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였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박상아, 이정운, 2008). 하지만, Erikson(1972, 1977)은 놀이성이 출생 초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넓은 생애 범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특질로 소개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아기의 놀이성 뿐만 아니라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놀이성에 관심을 보일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또래관계의 형성과 또래관계의 질이 중요한 발달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성과 또래관

계 관련 변인 간 관계를 밝히는 시도는 학령기 아동의 적응을 높이는 개입 전략 개발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 국내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성 연구는 유아 대상 놀이성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을 측정하는 국내 척도가 개발된(박상아, 이정운, 2008; 최태산 외, 2008) 이래로 관련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미정과 최태산(2011), 정해영(2012), 박현아(2011)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놀이성이 높을수록 학령 후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박현아(2011)는 이와는 다소 구별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놀이성 중 독자적 놀이성과 재미탐닉이 높을수록 학령 후기 아동의 대인관계적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유아의 놀이성 뿐 아니라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또한 사회관계적 요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유아기 놀이성과는 다르게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에서는 혼자 놀이나 자기중심적 놀이 특성이 부정적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성 하위차원과 또래관계 질 변인 간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은 다양한 갈등상황을 창출한다. 또래 간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보존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이 요구

된다. 갈등해결전략이란 개인이 또래관계에서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제해결 전략으로, 자기 입장이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갈등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Pollard, 1985). Rahim(Rahim, 1983; Rahim & Magner, 1995)은 자신과 갈등 대상에 대한 관심 정도에 기반하여 5가지 갈등해결전략 차원을 제시하였는데, 협력, 절충, 양보, 지배, 회피가 그것이다. '협력'은 자신과 상대 양쪽 모두에 관심이 높은 상태로, 양쪽이 수용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절충'은 양쪽 모두 일정 부분은 양보한 상태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전략으로, 양쪽 모두가 자신의 관심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양보'는 자신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낮고 상대에 대한 관심 정도는 높은 상태를 말하며, 서로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상대의 관심을 만족시키려 노력한다. '지배'는 양보와는 반대의 상태로, 자신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고 상대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를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회피'는 자신과 상대 모두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은 상태를 말하며, 갈등해결보다는 갈등 비직면을 주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또래관계와 같은 친근한 비형식적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과 절충 간 구분이 불필요함을 보고하고 있다(Hammock, Richardson, Pilkington, & Utley, 1990). 이런 이유로 또래관계 연구(배선영, 이은혜, 2001)에서는 협력과 절충

이 결합된 절충/협력 차원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배선영과 이은혜(2001)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절충/협력, 양보, 지배, 회피의 4가지 또래갈등해결전략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결과 절충/협력, 회피, 양보 갈등해결전략 차원 모두는 정서적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즐거움이라는 친구의 긍정적 기능 차원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보고된 상관계수는 절충/협력, 회피, 양보 순으로 친구관계 질 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지배 전략은 6개 친구의 긍정적 기능 차원 중 인정, 정서적안정, 도움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나머지 3개 차원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배선영, 이은혜, 2001). 이러한 결과는 회피나 지배가 또래 관련한 결과물에 반드시 부정적 함의를 가진 또래갈등해결전략이 아님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지배 전략은, 배선영과 이은혜(2001)의 연구에서, 앞서 기술한 친구관계에서의 긍정 기능과 더불어 갈등과 경쟁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친구관계 질에 양방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러한 또래갈등해결전략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놀이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일부 선행 발견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 관계를 탐색한 박현아(2011)는 사회적놀이성, 정서적놀이성, 기발성 성향이 높은 아동일수록 합리적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

처하는 경향이 높음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놀이성은 합리적 문제해결과 더불어 사회적지지추구, 인지적재구조화와 같은 긍정적 대처행동의 경향을 높이고 충동적, 회피적 대처행동의 경향을 낮추는 방식으로, 그리고 기발성은 합리적 문제해결 경향을 높이고 충동적 대처행동의 경향을 낮추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유머감각, 독자적 놀이성, 재미탐닉은 충동적, 회피적 대처행동과 같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높이는 영향과 더불어 행동적 기분전환이나 사회적 지지추구와 같은 긍정적 함의를 가진 대처행동을 높이는 영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 다른 근거는 지성애와 김승희(2010)의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또래상호작용에서 협조적, 창조적 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놀이단절, 즉 놀이에서 회피를 적게 한다고 보고하여 놀이성과 놀이 상황에서의 또래갈등해결전략 간 구체적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리한(2012)도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협동·공감과 같은 또래관계기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이들 연구가 구체적으로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갈등해결전략’이라는 개념에 집중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들로부터 발견된 결과는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이 이들의 또래갈등해결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정서적으로 밝고 명랑하며 놀이 자체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성향인 정서적 놀이성, 놀이 시 좋은 관계적 성향을 지니고 규

칙과 흥미를 공유하는 성향인 사회적 놀이성, 그리고 놀이 시 재치 있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성향인 기발성 등이 또래갈등해결전략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발견된 놀이성과 또래관계 관련 변인 간 관계에 기반하여 이러한 놀이성과의 관계가 선행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 변인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성 하위차원이 또래관계 관련 변인에 주는 임상적·적용적 함의가 다를 수 있음에 착안하여 놀이성 하위차원과 또래관계 질 및 또래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구별되는 분석 전략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는데, 놀이성 하위차원 점수들을 기반으로 후기 아동의 놀이성 군집을 추출하고 이러한 군집 간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에서의 차이를 검증하는 분석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즉 놀이성 하위차원과 또래관계 질 및 또래갈등해결전략 간 관계를 검토하는 동시에 놀이성 군집에 따른 또래관계 관련 변인에서의 차이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군집을 통한 분석은 일부 놀이성 하위차원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특성과 하위차원 간 높은 상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귀분석 결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군집을 활용한 분석은 국내 학령 후기 아동이 나타내는 놀이성 하위차원들의

특징적인 프로파일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러한 유형이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에 주는 임상적 함의를 조명할 수 있게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국내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현장에서의 맞춤형 개입 전략 구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임상적 유용성을 지닌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놀이성 차원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놀이성 하위차원에 기반한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군집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군집에 따라 또래관계 질과 또래관계갈등해결전략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학령 후기 아동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 모집을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곳,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2곳,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곳을 임의로 표집하였다. 질문지 총 450부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배부하여 383부를 회수했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한

36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응답하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자의 권리 등을 안내하고 연구 참가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질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였고,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년 분포는 초등학교 5학년 130명(35.6%)과 6학년 235명(64.4%)이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 179명(49.0%), 여학생 186명(51.0%)이었다.

2. 연구 도구

1) 놀이성

본 연구에서의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최태산 외(2008)가 개발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63문항,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유머감각(16문항), 정서적놀이성(12문항), 기발성(10문항), 사회적놀이성(14문항), 독자적놀이성(6문항), 재미탐닉(5문항)이 있으며, 역채점 문항은 없다. 각 차원에 대한 소개는 서론에서 이미 했고, 여기서는 문항 예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문항 예로는 유머감각에는 “나는 장난기가 많다,” “다른 친구들과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서적놀이성에는 “나는 항상 잘 웃는 편이다” “나는 항상 표정이 밝고 명랑한 편이다,” 기발성에는 “나는 놀이를 하면서 기발한 생각을 많이 떠올리는 편이다,” “나는 한 가지 게임 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지고 놀 수 있다,” 사회적놀이성에는 “나는

함께 놀 친구를 적극적으로 찾는 편이다,” “나는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주로 리드하는 편이다,” 독자적놀이성에는 “나는 혼자서 노래를 자주 부르곤 한다,” “나는 집에서 혼자 친구와 채팅하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재미탐닉에는 “나는 게임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편이다.” “나는 친구들과 이곳저곳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가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거의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놀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로 산출한 내적 일관도는 유머감각 .93, 정서적놀이성 .84, 기발성 .90, 사회적놀이성 .87, 독자적놀이성 .67, 재미탐닉 .65로 나타났다.

2) 또래관계 질

본 연구에서의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은 이주리와 유안진(1995)이 제작한 또래 환경 평가 척도 중에서 고학년 아동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7문항으로 정서적지지 9문항, 공동활동 5문항, 교환적협동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예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내가 슬플 때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나의 좋은 점을 알아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 활동은 “나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 “나는 친구와 함께 사먹기도 하고 문방구에도 같이 간다,” 교환적 협동은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같이 찾아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안 그렇다(1점), 거의

안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 늘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로 산출한 내적 일관도는 본 연구에서 정서적지지 .87, 공동활동 .77, 교환적협동 .83으로 나타났다.

3) 또래갈등해결전략

본 연구에서의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갈등해결전략은 배선영과 이은혜(2001)가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2000)의 청소년용 갈등해결전략척도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적합하도록 문항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절충/협력(4문항), 양보(4문항), 지배(4문항), 회피(4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예를 살펴보면, 절충 및 협력은 “우리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서로가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모두 말한다,” 양보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생각에 맞춘다,” 지배는 “나는 ○○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애쓴다,” 회피는 “나는 서로 다를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친한 친구의 이름을 떠올려 문항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많이 그렇다(4점), 아주 많이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로 산출한 내적 일관도는 본 연구에서 절충/협력 .73, 양보 .80, 지배 .79, 회피 .67로 나타

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IBM SPSS 22.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및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 전략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특성에 따른 하위 군집을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으로의 분류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놀이성 군집에 따른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 점수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 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놀이성 차원의 영향력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놀이성 차원의 영향력을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관련 변인들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1> 참조). 6개 놀이성 하위 차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중 독자적 놀이성과 재미탐닉

변인이 포함된 상관은 다른 놀이성 차원들 간 상관들보다 다소 낮은 상관 크기를 나타내었다. 4개 또래갈등해결전략 차원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물론 지배 전략은 양보, 절충/협력, 회피 전략과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지만 4개 전략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4개 또래갈등해결전략 차원과 3개 또래관계 질 차원 간 상관에 있어서는 지배전략과 교환적협동 관계질 간 관계를 제외하고는($r=.06$, ns) 나머지 변인 간 관계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15\sim.42$, all $ps<.01$).

본 연구의 관심이 되는 놀이성과 또래관

계 질 및 또래갈등해결전략 변인들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먼저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하위차원 점수들은 또래관계 질 하위차원 점수들과 $r=.29\sim.59$ 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유의도 수준 .01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이 중 사회적놀이성과 정서적지지가 $r=.59$ 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재미탐닉놀이성과 또래로부터의 정서적지지가 $r=.29$ 로 가장 낮은 상관 크기를 보였다. 또래관계 질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r=.59$), 공동 활동($r=.52$), 교환적 협동($r=.48$)은 모두 사회적놀이성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재미탐닉, 기발성, 독자적놀이성과는 다른 놀이성 차원들보다 상

<표 1>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또래관계 질, 또래갈등해결전략 간 상관($N=365$)

하위 영역	놀이성					또래관계 질			또래갈등해결전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유머감각	-												
2. 정서적놀이성	.59**	-											
3. 기발성	.63**	.63**	-										
4. 사회적놀이성	.62**	.72**	.64**	-									
5. 독자적놀이성	.39**	.37**	.35**	.37**	-								
6. 재미탐닉	.41**	.53**	.42**	.48**	.36**	-							
7. 정서적지지	.48**	.53**	.41**	.59**	.42**	.29**	-						
8. 공동활동	.50**	.48**	.35**	.52**	.35**	.33**	.63**	-					
9. 교환적협동	.33**	.47**	.31**	.48**	.37**	.33**	.75**	.64**	-				
10. 절충/협력	.32**	.57**	.44**	.47**	.29**	.33**	.42**	.42**	.37**	-			
11. 양보	.16*	.33**	.28**	.27**	.14*	.21**	.15**	.25**	.22**	.57**	-		
12. 지배	.39**	.34**	.40**	.31**	.11*	.21**	.19**	.18**	.06	.28**	.16**	-	
13. 회피	.25**	.43**	.31**	.29**	.25**	.32**	.21**	.27**	.24**	.51**	.60**	.30**	-

*** $p<.001$, ** $p<.01$, * $p<.05$.

대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표 1> 참조). 즉, 초등학생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질이 좋았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놀이성이 또래관계 질과 가장 높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미탐닉과 기발성, 독자적놀이성은 사회적놀이성보다는 또래관계 질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전 차원은 4개 또래갈등해결전략 차원과 $r=.11\sim.57$ 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이는 모두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은 절충/협력전략, 지배전략, 회피전략과 양보전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을 나타내고 있었다(<표 1> 참조). 또한, 놀이성 차원 중 정서적놀이성은 다른 놀이성 차원들보다 또래갈등해결전략과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절충/협력와의 $r=.57$; 회피와의 $r=.43$; 양보와의 $r=.33$; 물론 지배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놀이성의 하위차원은 정서적놀이성이 아닌 기발성이었음, $r=.40$). 즉, 초등학생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4가지 또래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서적놀이성은 또래갈등해결전략과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편,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의 각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놀이성 차원들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6개 놀이성 차원을 예측변인으로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의 각 차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검토한 결과, 모든 예측변인의 VIF 값이 1.22~2.39로 모두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 기발성을 제외한 5개 놀이성 차원(사회적놀이성, 독자적놀이성, 정서적놀이성, 재미탐닉, 유머감각)이 또래로부터의 정서적지지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놀이성($\beta=.36$), 독자적놀이성($\beta=.20$), 정서적놀이성($\beta=.19$), 유머감각($\beta=.11$)은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준 반면, 재미탐닉 놀이성 차원($\beta=-.11$)은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데 오히려 부적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5개 놀이성 차원들은 정서적지지 또래관계 질 점수 변량의 4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422$). 한편, 공동활동 또래관계 질의 경우는 사회적놀이성($\beta=.31$), 유머감각($\beta=.26$), 독자적놀이성($\beta=.12$)의 세 놀이성 차원이, 교환적협동 또래관계 질의 경우는 사회적놀이성($\beta=.25$), 독자적놀이성($\beta=.20$), 정서적놀이성($\beta=.22$)의 세 놀이성 차원이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사회적놀이성, 유머감각, 독자적놀이성 차원들은 공동활동 점수변량의 33.6%($R^2=.336$)를, 사회적놀이성, 독자적놀이성, 정서적놀이성 차원들은 교환적협동 점수변량의 29.7%($R^2=.29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놀이성 차원의 회귀(N=365)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F	R ²	수정된 R ²	
또래 관계 질	정서적 지지	사회적놀이성	.22	.04	.36	5.88***	52.49***	.422	.414
		독자적놀이성	.22	.05	.20	4.51***			
		정서적놀이성	.13	.04	.19	3.02**			
		재미탐닉	-.20	.09	-.11	-2.18*			
	공동활동	유머감각	.05	.02	.11	2.08*	60.94***	.336	.331
		사회적놀이성	.12	.02	.31	5.65***			
		유머감각	.07	.01	.26	4.75***			
		독자적놀이성	.08	.03	.12	2.60*			
	교환적 협동	사회적놀이성	.06	.02	.25	3.95***	50.80***	.297	.291
		독자적놀이성	.08	.02	.20	4.10***			
		정서적놀이성	.06	.02	.22	3.40**			
	또래 갈등 해결 전략	절충/ 협력전략	정서적놀이성	.21	.02	.49	8.80***	91.21***	.335
기발성			.05	.02	.14	2.45*			
양보전략		정서적놀이성	.16	.02	.33	6.60***	43.61***	.107	.105
		기발성	.11	.03	.25	4.15***			
지배전략		유머감각	.06	.02	.23	3.72***	42.20***	.189	.185
		정서적놀이성	.16	.03	.36	6.60***			
회피전략	정서적놀이성	.16	.03	.36	6.60***	43.81***	.195	.190	
	재미탐닉	.15	.07	.13	2.27*				

다중회귀분석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 표의 결과는 최종모델의 결과, *** $p < .001$, ** $p < .01$, * $p < .05$.

한편, 또래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 차원으로는 정서적놀이성은 절충/협력전략($\beta = .49$), 양보전략($\beta = .33$), 회피전략($\beta = .36$)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절충/협력전략에는 기발성 놀이성 차원($\beta = .14$)이, 회피전략에는 재미탐닉 놀이성 차원($\beta = .13$)이 정서적놀이성과 함께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지배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있어서는 기발성($\beta = .25$)과 유머감각($\beta = .23$)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래갈등해결전략 차원들 중 놀이성 차원들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차원은 절충/협력전략으로, 정서적놀이성과 기발성이 절충/협력전략 점수 변량의 33.5%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회피, 지배, 양보 전략 순이었으며, 해당 놀이성 차원들은 각각 19.5%, 18.9%,

10.7%를 설명하였다(<표 2>의 R^2 참조).

2.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군집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군집을 추출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유사성을 근거로 사람들을 몇 개의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묶어주는 통계적 절차이다. 본 연구는 계층적 군집화 결과에 근거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한 후, 비계층화 군집방법인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를 통해 각 개체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 분석하였다. K-평균 군집화 분석 방법은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하고 각 개체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량 데이터에서 군집을 추출할 때 유용하며, 개체가 어느 한 군집에만 속하게 될 때까지 분석절차를 반복한다.

6개 놀이성 하위차원(유머감각, 정서적놀이성, 기발성, 사회적놀이성, 독자적놀이성, 재미탐닉)의 표준화점수를 변인으로 투입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군집의 수가 3개일

때 의미 있는 과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평균 군집화 시 군집의 수를 3개로 고정하여 사례들의 소속 군집을 확정하였다. <표 3>은 최종 군집별 중심점과 군집의 사례수, 군집 간 놀이성 차원 점수에서의 차이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확정된 3개 군집은 6개 놀이성 하위차원 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나타내었다.

각 군집의 명칭 부여는 표준화된 군집점수를 고려하여 군집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명칭으로 선정하였다. 군집 1은 놀이성의 모든 하위차원 점수들이 평균(표준화 점수 $Z=0$)을 웃도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높은 놀이성군'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모든 변인이 평균(표준화 점수 $Z=0$)에 가깝고, 특히 군집 3에 비해 모든 놀이성 하위차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중간 놀이성군'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모든 변인이 평균(표준화 점수 $Z=0$)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낮은 놀이성군'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에 속하는 아동의 수는 높은 놀이성군이 140명(38.3%), 중

<표 3>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군집별 표준화 점수와 분산분석결과 및 군집크기 (N=365)

놀이성 하위영역	군집 1 ^a	군집 2 ^b	군집 3 ^c	F	사후검증
유머감각	.832	-.310	-1.102	185.90 ^{***}	a>b>c
정서적놀이성	.840	-.254	-1.279	236.05 ^{***}	a>b>c
기발성	.795	-.288	-1.076	159.43 ^{***}	a>b>c
사회적놀이성	.776	-.168	-1.369	219.46 ^{***}	a>b>c
독자적놀이성	.570	-.145	-.943	69.88 ^{***}	a>b>c
재미탐닉	.705	-.165	-1.207	141.91 ^{***}	a>b>c
군집 크기	140(38.3%)	166(45.5%)	59(16.2%)		

*** $p < .001$.

간 놀이성군이 166명(45.5%), 낮은 놀이성군이 59명(16.2%)으로, 중간 놀이성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군집에 따른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에서의 차이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 군집 간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 점수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F 검증 결과에 한해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놀이성 군집에 따라 또래관계 질의 세 하위차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서적지지 $F_{(2,362)}=75.59$, 공동활동 $F_{(2,362)}=57.30$, 교환적협동 $F_{(2,362)}=44.73$, all $p < .001$). 사후검증

(Scheffé)을 통해 구체적인 차이의 소재를 검토한 결과, 정서적지지, 공동활동, 교환적협동 또래관계 질 점수는 높은 놀이성군에서 가장 높았고, 중간 놀이성군이 그 다음이었으며, 낮은 놀이성군에서 가장 낮았다.

또래갈등해결전략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놀이성 군집에 따라 또래갈등해결전략의 모든 하위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절충/협력 $F_{(2,362)}=48.48$, 양보 $F_{(2,362)}=13.56$, 지배 $F_{(2,362)}=19.47$, 회피 $F_{(2,362)}=22.14$, all $p < .001$). 사후검증(Scheffé)을 통해 구체적인 차이의 소재를 검토한 결과, 절충/협력과 회피는 높은 놀이성군, 중간 놀이성군, 낮은 놀이성군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한편, 양보와 지배에서는 중간 놀이성군과 낮은 놀이성군 간에는 유의한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 두 집단 모

<표 4> 놀이성 군집 간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에서의 차이

변인		높은놀이성	중간놀이성	낮은놀이성	F	사후검증 (Scheffé)
		군집 ^a ($n=140$)	군집 ^b ($n=166$)	군집 ^c ($n=59$)		
		문항 $M(SD)$	문항 $M(SD)$	문항 $M(SD)$		
또래관계 질	정서적지지	3.08(.48)	2.71(.43)	2.18(.59)	75.59***	a>b>c
	공동활동	3.33(.53)	2.96(.50)	2.43(.70)	57.30***	a>b>c
	교환적협동	3.44(.59)	3.13(.52)	2.58(.74)	44.73***	a>b>c
	절충/협력	3.86(.67)	3.31(.62)	2.89(.88)	48.48***	a>b>c
또래갈등 해결전략	양보	3.46(.83)	3.10(.77)	2.84(.98)	13.56***	a>b=c
	지배	3.02(.87)	2.54(.79)	2.32(.87)	19.47***	a>b=c
	회피	3.51(.84)	3.11(.67)	2.76(.79)	22.14***	a>b>c

*** $p < .001$.

두는 높은 놀이성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과 또래관계 질 및 또래갈등해결전략 간 관계의 탐색을 통해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에 도움이 되는 임상적·교육적 전략 개발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발달단계별 놀이성 차원에 따른 또래 적응에의 함의가 다를 수 있음에 근거하여(박선영, 2012; 박현아, 2011) 놀이성 하위차원들과 또래관계 질 및 또래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6개 학령기 아동 놀이성 하위차원과 또래관계 질 및 질충/협력, 양보, 지배, 회피 또래갈등해결전략 간 관계를 상관과 회귀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고, 이와 더불어 6개 놀이성 하위차원 점수를 기반으로 학령 후기 아동의 특징적인 놀이성 군집을 추출, 이들 군집 간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에서의 차이도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의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대한 놀이성 차원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발성을 제외한 5개 놀이성 차원(사회적놀이성, 독자적놀이성, 정서적놀이성, 재미탐닉, 유머감각)이 또래관계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놀이

성 차원은 또래관계 질 중 또래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전체 정서적지지 점수 변량의 42.2%가 앞서 언급한 5개 놀이성 차원으로 설명되었다. 다음으로 공동활동이 3개 놀이성 차원(사회적놀이성, 유머감각, 독자적놀이성)으로 33.6% 설명되었고, 교환적활동이 3개 놀이성 차원(사회적놀이성, 독자적놀이성, 정서적놀이성)으로 29.7% 설명되었다. 정서적지지, 공동활동, 교환적활동의 세 또래관계 질 차원이 놀이성 변인들로 30% 이상 설명되고 있다는 점은 놀이성이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 예측과 또래관계 질 결정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사회적놀이성, 정서적놀이성, 독자적놀이성, 유머감각놀이성은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 재미탐닉 놀이성은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데 부적 영향($\beta = -.20$)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놀이성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사회적놀이성은 세 또래관계 질 예측 모두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령 후기 아동의 사회적놀이성을 개발하고 촉진시키는 전략은 이 시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놀이성 차원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놀이성, 기발성, 유머감각, 재미탐닉 놀이성이 또래갈등해결전략 사용에 유용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놀이성은 절충/협력전략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 경우 정서적놀이성과 기발성이 전체 절충/협력전략 점수 변량의 3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적놀이성과 재미탐닉은 회피전략 점수 변량의 19.5%, 기발성과 유머감각은 지배전략 점수 변량의 18.9%, 정서적놀이성은 양보전략 점수 변량의 10.7%를 설명하며, 뒷 순위를 이어 갔다. 언급된 놀이성 변인들은 모두 해당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갈등해결전략에 있어 정서적놀이성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이 놀이성은 절충/협력 전략($\beta=.49$)은 물론 양보 전략($\beta=.33$)과 회피전략($\beta=.36$)의 사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으로 밝고 명랑하며 즐겁고 활발하게 놀이에 임하고 몰입하는 학령 후기 아동의 특성이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절충/협력을 하게 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 혹은 의견충돌이나 다툼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식으로 회피를 하게 하거나 혹은 양보를 하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정서적놀이성과 관련 있는 절충/협력, 회피, 양보 전략은, 지배 전략과는 다르게, 모두 또래간 직접적 갈등이나 충돌, 경쟁을 완화/감소시키는 전략들이라 할 수 있다(배선영, 이은혜, 2001).

배선영과 이은혜(2001)는 학령 후기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 친구관계 질 간 관계 탐색에서 절충/협력과 회피, 양보 전략이 친구

의 긍정적 기능과 친구 관계 만족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이 중 절충/협력 및 회피 전략은 친구와의 갈등과, 양보 전략은 친구와의 경쟁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냄을 발견하여 절충/협력, 회피, 양보 전략과 또래 갈등/경쟁 감소 및 또래관계 만족감/기능 향상 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사한 맥락으로 이은채와 강문희(2005)도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절충/협력전략과 더불어 회피와 양보 전략이 또래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고 높은 또래 신뢰감 혹은 낮은 소외감을 예측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전술한 두 연구 모두에서 절충/협력과 회피 전략은 또래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유사한 관계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절충/협력전략 뿐 아니라 회피와 양보 전략 또한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서적놀이성의 개발은 또래 간 갈등/경쟁 감소와 또래관계 만족감 및 또래관계 질에 긍정적 함의를 가진 또래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 정서적놀이성은 또래로부터의 정서적지지와 또래와의 교환적협동과 같은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주어 학령 후기 아동의 긍정적 또래관계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배전략 사용의 예측에 있어서는 기발성과 유머감각 놀이성이 유의한 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머감각 놀이성은 지배 또래갈등해결전략 외의 정서적지지와 공동활동 또래관계 질 차원에

도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친구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쇼맨십이 있으며 분위기를 잘 살리고 친구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다양한 언어·동작을 사용하는 유머감각이 또래의 정서적지지와 또래와의 공동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 예측에 일관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유머감각이 지배전략에 정적으로 작용할 본 연구의 결과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배'라는 또래갈등해결 전략이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 적응에 주는 함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논의하였듯, 회피와 양보 전략은 절충/협력전략과 더불어 선행연구(배선영, 이은혜, 2001; 이은채, 강문희, 2005)에서 또래관계의 질이나 또래애착에 긍정적 함의를 제공하는 변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지배전략은 그 개념 상 절충/협력, 양보, 회피와 부적 관계를 가진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상관 결과는 이러한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네 또래갈등해결전략 점수들은 서로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표 1> 참조). 물론 지배전략과의 상관은 다른 또래갈등해결전략들 간 상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말이다. 선행연구들 역시 지배전략의 사용과 또래 적응 간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은채와 강문희(2005)는 지배전략이 또래의사소통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 소외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룸을 보고하고 있다. 즉 지배전략의 사용이 높은 아동일수록 의사소통의 질이

더 높고 소외감이 더 낮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유사하게 배선영과 이은혜(2001)는 지배 전략이 인정, 정서적 안정, 도움이라는 친구의 긍정적 기능과 정적 상관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한편, 김표선과 성영혜(2004)는 우정의 질이 또래갈등해결전략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결과 높은 친밀감 및 인정과 더불어 낮은 친구관계에서의 '갈등'과 '경쟁'이 학령 후기 아동의 지배전략 사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물론 이들 연구 모두가 변인간 인과성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 결과는 지배전략을 사용하는 학령 후기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아동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또래 관계 질과 지배전략 간 정적 상관에서도 시사되고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이해될 수 있다. 말하자면, 유머감각 놀이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 관계 질과 또래 적응이 높은 아동일 수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또래 내 적응과 지위가 김표선과 성영혜(2004)의 연구가 시사한 대로 지배 전략의 사용에 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재미탐닉과 관련한 결과이다. 재미위주의 놀이거리를 즐기고 몰입하는 특성인 재미탐닉은 또래로부터 정서적지지를 받는 데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또래갈등상황에서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데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 결과의 의미는 회피라는 또래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주는 적응

적 함의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겠으나 앞서 고찰한 논문들에 따르면 회피전략은 또래관계에 있어 질충/협력전략과 동일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명되고 있다(배선영, 이은혜, 2001; 이은채, 강문희, 2005). 본 연구에서도 회피전략의 사용과 또래 정서적지지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어 회피전략의 또래적응에의 긍정적 함의가 일부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재미탐닉이 또래 상황에서 상충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회피전략 사용의 결과물에서 특정 개인 혹은 상황 변인이 중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재미탐닉과 정서적지지의 관계에서 회피전략의 매개 여부 그리고 매개 후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서 회피전략과 정서적지지 간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는지 검증하는 즉 매개된 중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독자적놀이성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독자적놀이성이 학령후기 아동의 정서적지지, 공동활동, 교환적협동 또래관계 질에 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놀이성 척도를 개발한 최태산 외(2008)는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 차원들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같은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는데(<표 1> 참조), 이 점은 독자적놀이성이 또래관계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 본 연구 결과가 예상외의 결과가 아님을 드러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자적놀이성 척도의 내적일관도가 .67로 낮았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초등 2학년생과 5학년생을 대상으로 했던 최태산 외의 연구에서는 내적일관도가 .72였음). 이는 독자적놀이성이 이질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구인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항의 구인 타당도 혹은 내용 타당도가 낮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나는 혼자 나서하기를 좋아하는 편이다”와 “나는 하기 싫은 일도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혼자하는 편이다”의 독자적놀이성 문항은 본 연구에서 다른 독자적놀이성 문항들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적절한 내적일관도를 가진 독자적놀이성 척도를 사용해 본 연구 발견의 타당성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국내 학령 후기 아동에게서 특징적인 놀이성 군집 프로파일을 확인하려 하였다. 결과, 세 개의 놀이성 군집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높은 놀이성군’, ‘중간 놀이성군’, ‘낮은 놀이성군’으로 단순화시켜 명명하였다. 군집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세 놀이성 군집을 6개 놀이성 차원의 프로파일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세 놀이성 군집은 6개 놀이성 차원에서 높은 놀이성군>중간 놀이성군>낮은 놀이성군 순의 점수를 나타냈다. 해당 군집에 속하는 아동의 수는 중간놀이성군에 속하는 아동의 수가 45.5%로 가장 많았고, 높은 놀이성군과 작은 놀이성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각각 38.3%, 16.2%로 순위를 이어갔다. 세 놀이성 군집 간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에서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세 군집은 정서적지지, 공동활동, 교환적협동의 세 또래관계 질 차원에서

모두 서로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높은 놀이성군>중간 놀이성군>낮은 놀이성군 순으로 또래관계 질이 높았다. 한편, 절충/협력 및 회피 또래갈등해결전략에 있어서는 높은 놀이성군>중간 놀이성군>낮은 놀이성군 순으로, 양보와 지배 또래갈등해결전략에 있어서는 중간 놀이성군과 낮은 놀이성군 사이에는 유의한 점수 차이가 없었으나 이 두 놀이성 군집은 높은 놀이성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세 놀이성 군집은 이전 조미정과 최태산(2011)이 확인한 놀이성 군집들과 일부 차이가 있었다. 조미정과 최태산(2011)은 국내 초등학교 3,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4개의 대표적인 놀이성 군집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낮은 놀이성군', '독자적.재미탐닉 놀이성군', '관계지향적 놀이성군', '높은 놀이성군'이 그것으로, 낮은 놀이성군과 높은 놀이성군과 유사한 놀이성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조미정과 최태산(2011)의 독자적.재미탐닉 놀이성군과 관계지향적 놀이성군의 2개 놀이성군은 본 연구의 중간 놀이성군에 해당하는 점수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말하자면, 조미정과 최태산(2011)의 연구에서는 중간 범위의 점수들이 독자적놀이성과 재미탐닉 점수가 다른 4개 놀이성 점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독자적.재미탐닉 놀이성군과 이 두 놀이성 점수가 다른 4개 놀이성 점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지향적 놀이성군으로 이분화되고 있지만 이 두 집단을 평균하면 본 연구의 중간 놀이성

군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비록 본 연구는 중간 놀이성군에서 이 같은 세분화된 2개 집단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조미정과 최태산(2011)의 연구가 현시점에서 8년 전 연구라는 점과 두 연구가 대상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초등 5~6학년생 vs. 초등 3~6학년생) 본 연구로부터 추출된 놀이성 군집은 최근의 국내 학령 후기 아동의 특징적인 놀이성 유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낮은 놀이성 군집에 속하는 학령 후기 아동이 중간 놀이성 군집이나 높은 놀이성 군집에 속하는 학령 후기 아동보다 또래관계 질이 더 낮고, 또래 적응에 유용할 수 있는 절충/협력, 양보, 회피 갈등해결 전략의 사용이 더 적음을 발견하였다. 물론 지배전략과 관련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되나 현 연구에서는 지배전략 사용 또한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과 부정적 상관을 가진 변인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표 1> 참조). 본 연구는 국내 학령 후기 아동 중 16% 정도가 낮은 놀이성 군집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16% 정도의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낮은 또래관계 질과 또래 갈등 해결 전략 사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놀이성 개발 및 촉진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또래관계 질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되는 사회적놀이성과 절충/협력 또래갈등해결 전략 사용에 특히 도움이 되는 정서적놀이성을 개발, 촉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동 작업 놀이(예, 요리나 상대에게 식고로 손모형 떠 주기)를 선정, 함께 활동하게 하고 활동 후 즐거웠던 측면을 함께 나누고 그 기억을 심도 처리(processing)시키는 작업(예, 기록장에 놀이 사진을 붙이고 기 한 줄 평 쓰거나 그림일기 작성하기)은 사회적놀이성과 정서적놀이성 모두를 촉진하는 개입이 될 수 있다. 보다 최근에는 협동게임의 개념이 교육현장에 도입되고 있는데, 이 게임은 승패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간 협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에 집중하며 이를 격려하고 강화한다. 최근 몇몇 연구는 협동게임이 또래 수용을 높이고 또래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개입임을 보여주고 있다(서경순, 2018; 이해정, 2016). 이러한 게임은 또래관계 질을 높이고 절충/협력과 같은 건설적인 또래갈등해결전략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사된 사회적놀이성, 정서적놀이성, 기발성놀이성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어떤 형태로든 놀이성향을 발휘하는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또래관계와 또래갈등해결전략 사용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iaget(1965)는 또래와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판단력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아동이 또래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일치 및 불일치를 경험하고 상황적 관점을 이해해 가면서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 나감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또래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개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새로운 놀이성의 개발과 더불어 아동이 이미 가지고 있는 놀이성을 발휘시키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연구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성과 또래관계 질 및 또래갈등해결전략 간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학령 후기 아동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는 국내 학령 후기 아동의 특징적인 놀이성 군집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이러한 군집의 또래관계에의 함의를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또래관계의 질을 높이고 적응적 또래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을 위한 놀이성 차원에서의 개입에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놀이성, 또래관계 질, 또래갈등해결전략을 모두 아동의 자기보고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적 성향과 행동방식, 현재 상태는 개인의 보고가 적합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이나 개인의 바람이 일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예: 교사보고, 또래보고, 부모보고, 행동관찰 등)으로 관련 구인을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일부 측정 도구는 내적 일관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독자적놀이성(6문항), 재미탐닉(5문항), 회피전략(4문항)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내적일관도는 문항 수에 영향을 받아 문항 수가 적은 경우 내적일관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Clark & Watson, 1995). 또한, 구인이 그 특성상 이질적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내적일관도가 낮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Clark과 Watson(1995)은 척도 문항 간 상관들이 .15를 넘는 경우는 내적일관도가 낮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기준에 입각했을 때, 본 연구의 회피전략 척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독자적 놀이성(가장 낮은 문항간 $r=.06$)과 재미탐닉(문항간 상관이 .15보다 낮은 문항쌍이 4개 있었음)은 문항간 상관이 매우 낮은 문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는 내적일관도가 보다 높은 독자적놀이성과 재미탐닉 척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성과 아동의 대인관계적 측면(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하지만 Erikson(1977)은 놀이성이 출생 초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넓은 생애 범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특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추후 연구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 놀이성이 이들의 대인관계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가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놀이성의 중요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특히 이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놀이성의 구체적

차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놀이성 영역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추후 연구는 이러한 놀이성 차원에서의 임상적/교육적 개입이 실제 아동의 또래관계 질이나 또래갈등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경혜, 정현아 (2005). 아동이 지각한 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스트레스 및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2(2), 113-131.
- 김근희 (2005).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리한 (2012).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과 놀이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 수준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 (2010).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변화와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경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표선, 성영혜 (2004). 아동의 또래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아동연구*, 17(2), 1-43.
- 박상아, 이정윤 (2008). 아동용 놀이성 척도의 개발 및 예비 타당화. *청소년상담연구*, 16(1), 139-152.
- 박선영 (2012). 유아의 놀이성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14(1), 129-152.
- 박은주 (2008). 만 4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아 (2011).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 이은혜 (2001).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5, 80-88.
- 서경순 (2018). 협동게임이 유아의 친사회성, 공격성, 또래 수용도, 또래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경 (2013). 어머니의 놀이성과 유아의 성 및 놀이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263-283.
- 이수희, 이재연 (2008). 부모 체벌과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관계에서 부모 거부 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9(6), 135-146.
-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1-121.
- 이은채, 강문희 (2005).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 또래 애착과의 관계. *심리치료*, 5(1), 1-21.
- 이주리, 유안진 (1995). 유아 및 아동의 가정 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 127-147.
- 이지희 (2009).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정 (2016). 협동게임이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및 방관자적 태도와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경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영 (2012).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이 자기수용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정, 최태산 (2011). 아동의 놀이성 군(群)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 연구. *인간발달연구*, 18(3), 37-51.
- 지성애, 김승희 (2010).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래상호작용, 놀이성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5(4), 111-127.
- 최수경, 박인전 (2012). 유아의 놀이성, 사회적 유능감, 리더십 간의 구조 관계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70, 55-76.
- 최연화 (2011). 남녀 유아의 놀이성,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구. *육아지원연구*, 6(2), 147-164.
- 최윤미 (2010).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유

- 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태산, 최명선, 조미정 (2008). 초등학생의 놀이성 척도 개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4), 35-52.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and Culture*, 3, 319-336.
-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Clark, L. A., & Watson, D. (1995). Constructing validity: Basic issues in objective scale develop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7, 309-319.
- Erikson, E. H. (1972). Play and civilization. In J. S. Bruner, A. Jolly, & K. Sylva (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pp. 690-703). New York: Basic Books.
- Erikson, E. H. (1977). Toys and reasons: *Stages in the ritual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Norton.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71, 83-103.
- Hammock, G. S., Richardson, D. R., Pilkington, C. J., & Utley, M. (1990). Measurement of conflict in social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577-583.
- Kinney, D. A. (1993). From nerds to normals: The recovery of identity among adolescents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66, 21-40.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Lieberman, J. N. (1977).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Pollard, A. (1985). *The social world of the primary school*. London: Taylor & Francis.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Rahim, M. A., & Magner, N. R. (199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First-order factor model and its invariance across group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122-132.
- Rubin, K. H., Fein, G. G., & Vandenberg, B. (1983). Play.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693-774). New York, NY: Wiley.

원고 접수일 : 2019. 01. 06

수정 원고접수일 : 2019. 02. 01

게재 결정일 : 2019. 02. 20